

「일본어성경읽기교실」의 모티브

<http://hanilplus.com/japan/>

어떤 이는 “일본선교?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보다 급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 보낼 선교비면 얼마나 많은 나라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땅 끝은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입니다.

일본으로 가는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니스웨로 가서 외친 요나와 같은 심정일지 모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스웨가 무너지리라." 이 황당무계한 미친 소리...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니스웨 사람들은 단순히 망한다고 외치고 다니는 요나의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6년 전의 일입니다. 2002년 월드컵으로 한일 간이 뜨거웠던 그 해 여름, 부산에서 사업을 하던 저는 사무실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해운대 모래사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온 국민의 염원인 4강 진출을 함께 응원하며, 울고 웃곤 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해운대에 위치한 부산 수영로교회 일본인 형제들과 함께 "神様は本当にいらっしゃいます"(가미사마와 혼토-니 이랏샤야마스 :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라고 적힌 플렌카드를 양손에 들며 인산인해의 해운대를 누비며 일본인을 상대로 하는 노방전도를 전개했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하루는 40대 중반의 아주머니 한 분이 일본어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고 말이지요. 우리 일본선교팀은 그 길로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역회사 한국 주재원인 남편을 따라 부산에 상주한지 2년 된 야스모토유리코 (安本百合子) 씨는 이 일을 계기로 우리와 몇 차례 더 만나게 되었고, 얼마 후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남편은 물론 남편 회사의 동료 분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이렇게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라는 이 한 마디가 어떻게 그녀의 심령을 움직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이번에 「일본어성경읽기교실」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지난 2월 중순 김우현 목사님이 “문집사님 성도를 위한 일본어강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봉사를 그 동안 제가 해왔던 기도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며 기쁨 마음으로 수락하게 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그 시작은 미약했습니다만, 이제는 기초에서 초급 단계로까지 발전한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산제일교회 「일본어성경읽기교실」 모임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어성경읽기교실」 강의가 시작된 것은 금년 3월부터입니다. 목적의식 없이 단순히 일본어를 배워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성경을 통해 일본어 회화와 독해를 배우고 나아가 일본선교에 일조를 한다는 모티브를 가지고 열심히 학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성경읽기교실 홈페이지 <http://www.hanilplus.com/japan/>)

현재 학생 수는 9명이며, 기초(글자익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초급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학습목표는 일본성경을 통해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그 적용은 배운 일본어를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은 내년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후쿠오카(福岡)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해외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그 선교지의 말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 문화와 경제 등을 인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본성경을 읽어가며 조금씩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가는 중입니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새신자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보충수업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 인터넷 화상강의를 통해 회화와 미디어 분야(일본 드라마, 영화, 일본찬양 등)의 학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일본어상설기초반1기 - 글자부터 (3개월 단위 : 매주 토요일 오후2시)」 강의를 추가 신설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본어성경읽기교실」 개설 목적 및 현황보고를 간단히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